

# 광주·전남 상장사 1분기 7129억 적자

(영업이익 기준)

한전 실적 부진 영향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줄어

부채비율 3.46%P 증가... 코스닥도 총매출 11.74% ↓

지난 1분기 광주·전남 지역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순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실적을 좌우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1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2017사업연도 1분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 상장사 15개사의 총매출

액은 16조76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7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7129억원으로 전년(3903억원) 대비 무려 282.64% 감소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순이익도 3555억원에 그치며 전년(1조1147억원) 대비 68.11%(7592억원) 감소했다.

매출액 비중이 높은 한국전력(90.6%)을 제외할 경우 매출액 및 순이익은 각각

5.58%, 44.82% 감소했다. 한전은 지난 1분기 매출액 15조1933억2800만원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0%포인트 감소했다.

영업이익 또한 -7839억8000만원으로 적자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3176억2400만원으로 69.64%포인트 줄었다.

부채비율은 93.48%로 전년말 대비 3.46%포인트 증가해 전국평균(72.81%)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상기업 15개사 중 14개사(흑자전환 1개사)가 순이익 흑자를 시현한 반면 금호타이어는 264억6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코스닥상장사 12사의 총매출액은 1121억원으로 전년(1270억원) 대비 11.74%(149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7억원으로 전년(72억원) 대비 48.15%(35억원) 감소했고, 순이익도 7억원에 그치며 전년(88억원) 대비 92.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31.33%로 전년말 대비 0.96%포인트 증가했으나, 전국평균(60.7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대상기업 12개사 중 8개사가 순이익 흑자를 실현한 반면 제이웨이와 오이솔루션, 파루, 행남생활건강 등 4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김대성기자bigkim@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86.82 (-6.26)      금리 (국고채 3년) 1.68% (0.00)
- ↓ 코스닥 638.12 (-1.89)      ↑ 환율 (USD) 1124.50원 (+6.20)



## 더 스포티해진 기아차 '2018 K3'

기아자동차는 트림과 사양 구성을 개선하고 디자인을 고급화한 '2018년형 K3'를 18일 출시했다.

2018년형 K3에는 인조가죽 퀴팅시트가 새로 적용됐고, 기존 16인치 알루미늄 대신 고급스러운 16인치 전면가공 알루미늄이 장착됐다.

전체 차종의 트림과 사양은 고객 선호에 맞춰 최적화됐다. 가솔린 세단의 경우 기존 6종에서 4종으로, 디젤 세단은 6종에서 3종으로 축소됐다.

트렌디 트림과 트렌디 스타일 트림은 16인치 전면가공 알루미늄을 기본으로 적용했다. 사양 조정으로 가격은 동결됐

다. 또 고성능 에어컨 필터와 리어 스포일러(뒷날개) 등 신규 사양이 선택 사양에 포함됐다.

가솔린 세단의 프레스티지 스페셜 트림은 인조가죽 퀴팅시트와 고성능 에어컨 필터 등을 적용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8년형 K3는 합리적인 가격의 스포티 스타일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가격은 ▲가솔린 세단 1545만~2105만원 ▲디젤 세단 1800만~2113만원 ▲유로 2200만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사랑'을 퍼주는 광주국세청장 남구 광주직업소년원서 배식 봉사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8일 서동 '사랑의 식당'에서 펼친 '사랑의 밥피' 행사에서 식사를 나르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은 18일 광주시 남구 서동에 위치한 광주직업소년원 내 '사랑의 식당'(원장 김윤호)에서 김희철 청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직원들이 '사랑의 밥피' 행사를 실시하였다.

'사랑의 밥피' 행사는 광주지방국세청이 11년 전부터 '사랑의 식당'을 후원하면서 독거·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펼쳐온 무료급식 봉사활동이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돼지고기, 홍어무침, 떡 등 특별식을 마련하여 500여명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 영세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였다.

김희철 청장은 "한 끼 식사지만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껏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함께 소통하는 세상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수출기업 정규직 일자리 창출, 내수기업의 2배

최근 10년간 12만5000명... 1인당 연봉 7800만원 1.3배

최근 10년간 수출기업에 의한 신규 정규직 일자리 창출 규모가 내수기업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8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제조업 분야 3418개 사의 2006~2015년 취업자 수는 18만7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출기업의 취업자 증가분은 11만4천명으로 내수기업 7만3000명의 1.6배였다. 특히 정규직은 수출기업의 경우 내

수기업(6만5000명)보다 2배 많은 12만5000명을 새로 고용했다.

임시 일용직의 경우 수출기업은 1만명 감소한 반면 내수기업은 7000천명 늘었다. 수출기업은 내수기업보다 임금 수준도 높았다. 2015년 1인당 연봉은 수출기업 7800만원으로 내수기업(5900만원)의 1.3배였다.

2006년 대비 2015년의 1인당 연봉 상승분은 수출기업 2700만원, 내수기업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협뉴스

수출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2015년 4.5%로 내수기업(1.1%)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또 수출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8억9000만원으로 내수기업(5억5000만원)의 1.6배에 달했다.

고용, 생산성, 임금, R&D 투자 등 대부분 지표에서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을 앞선 것이다.

보고서는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통해 수출 활력은 물론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마세라티 전 차종 무상점검

마세라티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 동안 광주 등 전국 9개 마세라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세라티는 전 차종을 대상으로 엔진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에어필터, 타이어, 와이퍼, 브레이크패드·디스크, 벨트류, 배터리 등 10개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유상 수리를 받거나 부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겐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타이어, 액세서리 상품에는 20% 할인 혜택이 있다. 캠페인 기간 방문 고객에게는 마세라티 텀블러가 선착순으로 증정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 4월 10억1300만 달러 무역 흑자

광주·전남 수출입 전년비 0.5% ↑ ... 무역수지 30.8% ↓

광주·전남지역의 지난 4월 수출입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주동필)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34억6000만 달러에 수입은 23.6% 증가한 24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30.8% 줄어든 가운데 광주가 8억6600만 달러, 전남은 1억4700만 달러로 광주·전남지역은 총 10억13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다.

광주지역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냉장고, 건전지, 축전지 등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고무제품, 금형, 자동차부품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일부 신형차가 수출 회복과 유럽시장 중심으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액은 5억4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전남지역 품목별 수출은 합성수지, 철강관, 석유화학제품, 기초유류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과 부품 등은 감소했다.

합성수지는 설비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 수출단가 호조에 힘입어 수출액은 6억3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매가 1억 (용 2천)

### 상무지구 상가 매매

□ 10층 중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상무지구 중심상업내

□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전대 정문 2분. 광주역 2분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갈끔)

▶ 매가 2억4천만 (용 1억6,500만)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구분 상가(소액) 물건 추천**

- 북구 신안동 (10층중 3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평수), 월수익 100만원 ▶ 감정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 남구 백운동 (상가 주택) 토 65평 건 145평, 월세 200만원 예상 ▶ 감정가 3억1천 → 최저가 1억7천
- 동구 학동 (아파트 상가) 학동 중심지역 1분/대단지 아파트 밀집 상가, 실평수20평 ▶ 감정가 7천9백 → 최저가 5천5백
- 광산구 장덕동 (7층 중 2층 상가) 건 40평, 수원지구 대명노블랜드 후문(코너)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6,500만
- 동구 산수동 (원룸) 토 83평 건 145평, 월세 350이상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19평, 월세 1200이상 ▶ 2억6천~1억2천
-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이상 ▶ 2억6천 → 1억2천

- 경매교육 (기초반) ▶ 매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학까지
- 경매교육 (실전,투자반) 실전 교육특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학부터 매매인데,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현대아파트 사이)

**아파트경매물건 추천**

-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분양면적 33평) 감정가 2억6천 → 최저가 1억8천
- 광산구 선암동 선문모아빌 (분양면적 33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 북구 운암동 백산루명메가씨티 (분양면적 58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2억4

062-511-7800

010-6670-9800

010-7384-7800

010-2699-5300